“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처님 복지”



[복지시설 탐방] 강원 양양 무산복지재단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는 대표 관광도시 양양군이 강원도 내 최고 복지도시란 점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2017년 국회 조사에서 전국 251개 시군구 중 7위, 강원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한 양양군에는 21개 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6개를 운영하는 무산복지재단은 양양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5년 낙산사복지재단으로 출발해 2012년 설악무산 스님을 기리며 설립된 무산복지재단은 유치원부터 지역전문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

치매 중풍도 佛心으로 치유

2005년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도량복원 불사란 과업을 안고 낙산사 주지로 부임했다. 당시 낙산사를 전소시킨 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낙산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양군민들을 치유하는 복지 불사에도 뛰어들었다. 사찰과 대중은 함께 이어져 있기에 대중들의 마음을 보듬는 불사가 진정한 불사라는 의미에서였다.

낙산사는 도량복원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화재 직후인 2005년 10월 낙산사복지재단을 설립한다. 이를 시작으로 낙산주간보호소를 개원했으며, 2007년부터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무료급식소를 열고 하루 평균 250여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인 2007년에는 치매와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치유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상락원을 개원했고, 2013년에는 이를 낙산요양원으로 확장시켰다. 낙산사는 이러한 노력 끝에 2010년에는 양양군노인복지관을 위탁함으로서 명실공히 양양군의 복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다양한 무산복지재단의 어르신 복지시설 중 ‘낙산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질환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신관과 본관에 110명의 어르신이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신시설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미술치료와 요리강습 등을 하며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인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상3층 지하1층의 대형 복지관으로 30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취미활동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까지 다양한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무산복지재단은 경로당 지원, 저소득 가정 연탄 지원, 명절 독거어르신 경로잔치 등 지속적인 행사도 열고 있다.

아동 복지

미래 부처 동량 키운다

무산복지재단의 활동은 어르신 복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까지 전개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로 있던 정념 스님은 2007년 낙산유치원을 건립하며 양양지역 미래불사에도 뛰어 들었다. 1983년 ‘현산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한 ‘낙산유치원’은 양양 지역의 유일한 불교유치원이었지만 시설 노후화가 문제였다. 불교유치원이란 이유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과 낡은 시설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사연을 접한 정념 스님은 유치원 재건립 불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양양 중심지에 2800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건립불사를 시작했다.

아 동 – 유치원 · 아동센터 · 도서관
청소년 – 1318아동센터 · 장학사업
어르신 – 요양원 · 복지관 · 보호센터

2008년에는 낙산유치원 맞은편 부지도 매입해 양양군 청소년 중심도량인 ‘무산오현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이어 2009년에는 무산지역아동센터와 부설 의상도서관을 개원했다. 이는 영유아 교육부터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필수시설로 이 곳에서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고, 책을 읽으며 저녁 식사까지 한다.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놓치기 쉬운 인성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런 인성교육에는 무산복지재단이 자랑하는 시설 중 하나인 의상도서관도 일익을 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상도서관은 ‘책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공부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명상 등 마음수행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상담도 진행된다.

현재 낙산유치원을 비롯해 청소년공부방과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이 집결된 무산오현문화센터는 양양군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서있다.

이 밖에도 낙산사는 매년 어린이날 동화책과 손목시계 등을 지역 아동들에게 선물하는 등 미래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청소년 복지

무산복지재단은 최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1318무산지역아동센터도 개원했다. ‘따띠(따뜻한 아띠)’라는 이름으로 2016년 문을 연 1318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과 미술, 독서교육 등 문화교육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2층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영화 상영과 공연도 펼쳐진다.

무산복지재단의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 뿐 아니다. 청소년 문화 포교단체인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도 10년째 운영중이다. 매년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한마음운동회, 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를 겸한 달팽이 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양지역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생활정착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및 각종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산복지재단은 2012년 사랑의연탄 및 겨울철 저장식품 나눔을 진행, 5년간 양양초등학생 및 가족봉사단, 양양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봉사단 등 100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양양군 내 생활이 어려운 1,268세대 연탄가구에 1억원 상당의 연탄과 식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사장 정념 스님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사에 매진, 지역발전과 불교미래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진 것 덜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

Interview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금곡 정념 스님



정부가 실시한 인구총조사에서 불자 인구 300만 감소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인 불교계, 하지만 양양군에서만큼은 불교 미래는 밝기만 하다. 양양군의 불자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무산복지재단의 꾸준한 인재불사, 자비실천이 있었다. 이런 무산복지재단의 중심에는 이사장 정념 스님이 있다.

“무산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은 설악산 신흥사 조실이신 무산 오현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재단 명칭도 그 가르침을 위해 따왔죠. 평소 사찰이 지역민심을 아우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큰스님의 원력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산복지재단의 ‘무산’은 설악무산 스님의 법명으로 무산 스님은 강원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비행을 오랫동안 베풀어 왔다. 설악산 백담사에서는 일거리가 없는 마을 주민을 위해 버스를 구입해 왕복버스를 몰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하며 미래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2005년 낙산사 화재 복구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며 불교가 사회에 다시 회향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복지, 문화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는 사실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전국 3000여 사찰이 각 지역에 맞는 복지활동을 펼치고 매년 1명 씩이라도 불자를 배출하면 불교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진 것을 덜어내고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곧 행복이 돌아온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행복에서 꽃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각 시설에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스님은 “재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데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작은 창고였던 곳이 어르신을 보듬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어린 아이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는 불심으로 이들을 보살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복지불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산복지재단의 자랑, 다양한 복지서비스

노인의료
‘어르신들의 은빛 보금자리’ 낙산요양원



낙산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
낙산노인복지센터



낙산노인복지센터는 낮 동안 보호자 부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줘, 가족들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여가
양양군노인복지관



2010년 8월 개관한 양양군노인복지관은 무산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 생교육, 취미여가사업지원, 어르신자원봉사 활성화, 동아리활동지원, 어르신문화예술단 육성, 건강생활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
낙산유치원



2007년 신축된 낙산유치원은 6학급에서 창의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방과후 과정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실습지도 등 양양지역 유일 사립 유치원으로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아동복지
무산지역아동센터



2007년 의상공부방으로 시작한 무산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무산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시작, 현재 양양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문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2014년 무산지역아동센터에서 분리된 청소년 아동센터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문화, 정서지원을 비롯해 수학, 영어 및 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 수업도 진행된다. 특히 저소득 가정 청소년 멘토링을 비롯한 진로상담을 진행중이다.